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진안군, 조기추진 행보 가속

이향로 군수, 기재부 설득·정치권 공조 모색

진안군은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관심이 낮아진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이산화 및 조기 추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의 결과가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난 9일 이향로 군수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이근상 부군수도 25일 정운천 국회의원 당선자를 방문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2013년 1월 전라북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국가(산림청)에서 국립으로 추진하고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2014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B/C 1.21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

지덕권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백운동계곡 일원 617ha 부지에 총사업비 988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진하며, 핵심지구 등 4개 지구에 산림치유센터, 한방식요센터, 한방산림치유개발센터, 숲속의 집, 치유의 숲, 치유정원, 산림문화체험관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사업(국립)이 아닌 국고보조사업(공립)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하면서 뼈가 대가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와 진안군은 고심 끝에 총사업비를 595억원(국비 495억원)으로 줄여서라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것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1년 넘게 줄

다리가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사)진안군애향운동본부의 비롯한 진안군 53개 사회단체 연합회는 지난 4월 1일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국가사업 추진을 주장하며 항의 집회 및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향로 군수는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북도민과의 약속이며, 사회통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백두대간과 동등한 대우가 필요하고, 보편적인 산림치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초 대통령 공약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를 물론, 산림청, 전북도, 정치권과 공조하여 다양하고 전략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배낭무게 줄이기 운동 3가지 실천 약속(준비된 산행, 가벼운 배낭, 흔적없는 공원) 캠페인을 전개했다.

‘배낭무게 줄이기 적극 참여하세요’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준비된 산행 등 약속 실천 캠페인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태)는 2016년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친환경 탐방문화 정착을 위한 배낭무게 줄이기 운동 3가지 실천 약속(준비된 산행, 가벼운 배낭, 흔적없는 공원) 캠페인을 지난 28일, 29일 2일간 탐방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무주덕유산리조트,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탐방객 등 10,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덕유산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배낭무게 줄이기 운동과 그린포인트제도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였다.

국립공원 "배낭무게 줄이기"란 산행

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꼭 필요한 짐만 싸아 배낭 무게를 줄이고, 음식 및 과일류는 일회용이 아닌 용기에 담아 준비하며, 야생생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과일껍질 등 음식물쓰레기는 소지한 용기에 다시 가져오는 등 탐방 흔적을 남기지 않고 추억만 남기는 범국민 환경정착운동이다.

홍성열 자원보전과장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국립공원의 맑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으로 자연을 느끼고 건강을 지키는 탐방문화 위우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립공원리포트

무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무주군은 마을세무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운영 하는 것으로 관내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 등 저소득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진행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에 따르면 "황 & 박 세무회계사무소"의 황영훈 세무사가 마을세무사로 활동을 하게 됐으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세무직 공무원 2명을 민원상담지원으로 배치해 6월 1일부터 국세·지방세 관련 상담을 비롯한 지방세 불복청구 등 본격적인 상담을 이어갈 방침이다.

상담을 원할 경우 무주군 홈페이지와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을 하면 비대면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 재무과 이현우 세무담당장은 "어려운 세무업무 무료 상담을 통해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군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와 질 높은 상담 진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도로명 서포터즈와 도로명주소 홍보캠페인 전개

장수군은 지난 28일 도로명 서포터즈와 함께 도로명주소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도로명 서포터즈란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장수군 도로명 서포터즈와 공무원 20여명은 기관 및 시설 등을 방문하며 도로명주소의 정확한 사용법에 대해 홍보했다.

또한 노하순 등 주요 관광지에서 국토대장정 운동을 전개하며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동네 한바퀴 걷기로 건강 챙기세요

완주 상관면 지역 주민 100여명 참가

완주군이 30일 상관 지역 주민 100여명과 함께 동네한바퀴 마을길 건강 걷기를 실시하였다.

걷기 코스는 상관보건지소를 출발하여 → 상관 성당 앞 → 신리 교회 앞 → 자연 농원 내 돌기 → 신리 교회 앞 → 상관 성당 앞 → 상관보건지소 도착까지 2km, 소요시간 약 40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코스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동네한바퀴 마을길 건강걷기 행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일생생활 속에서 동네 한바퀴를 돌면서 건강걷기를 통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열린 행사이다.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 걷기는 혈액 순환을 촉진해 통한 심장 질환 예방과 체지방 감소로

비만을 개선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현대인의 만성질환을 예방한다. 또한 골밀도를 유지 및 증진시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증가에 효과적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주민 스스로 건강 걷기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매일 30분 이상 걷기 실천은 보약 한 그릇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날 보건소에서는 치매파트너 교육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건강검진 및 건강 상담을 함께 병행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관리 수준을 높이고 만족감을 높임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게 되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은 마을 내 도로 및 공동 생활공간 주변에 버려진 주택용 방치 슬레이트나 주택에 보관 중인 슬레이트를 무상으로 수거, 처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안군, 방치·보관 슬레이트 무상수거

진안군은 청정 자연환경을 지키고 주거 및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 방치 및 버려진 슬레이트를 무상으로 수거, 처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마을 내 도로 및 공동 생활공간 주변에 버려진 주택용 방치 슬레이트나 주택에 보관 중인 슬레이트를 무상으로 수거, 처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진안군민의 시책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는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진안군에서 자체 예산 1억4,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관내

130여개소에 방치된 약 16천㎡의 슬레이트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진안군, 부귀면 및 용담면의 70개소에 버려져 있던 약 7천㎡의 슬레이트를 처리하였고, 6월말까지 그 외 8개 면 지역에 방치된 슬레이트를 차례로 모두 처리할 예정이다.

이향로 군수는 "앞으로도 청정 자연환경을 지키고 슬레이트 불법처리 사전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산골영화제서 맛있게 먹어요

내달 3일~5일까지 반딧불야시장 운영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주군은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간 반딧불야시장(무주읍 반딧불야시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주반딧불야시장은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이곳에서는 맛있게 먹고! (양초튀김, 전 통전, 목사발 등)와 신나게 놀고! (LED반딧불 만들기, 클레이아트, 캘리그라피), 재밌게 보고!(포토앨, 공연 등), 좋은 것 사고!(무주군 반딧불 농특산물, 태권도 인형 등)를 즐기며 6월 3일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지역의 주민시네마스쿨 수료자 "적격자심사(19:30~)", "비시캠이 사람들(19:30~)"과 "산이 울다(20:00~)" 6월 4일 "박쥐(19:30, 주민시네마스쿨 수료자)", "잘못된 비밀(19:30~, 주민시네마스쿨 수료자)", "트윈스터즈(20:00~)", 6월 5일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19:30~, 주민시네마스쿨 수료자)", "이게 사랑일까(19:30~, 주민시네마스쿨 수료자)와 "쇼생크 탈출(20:00~)을 함께 관람해 볼 수 있다.

6월 4일과 5일(20:30~23:00)에는 반딧불이 신비탐사도 실시한다. 신비탐사는 서식지에서 직접 반딧불이의 반짝임과 생태환경을 관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5천 원이내 체험



무주군은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간 반딧불야시장을 운영한다.

이 가능하다.

탐사 하루 전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반딧불축제 홈페이지(www.firefly.or.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산골무주의 정취를 만끽하고 싶다면 마을로 가는 축제도 함께 즐겨보면 좋겠다. 무주군 관내 마을들의 생활상과 정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로 삼매짜기, 곤충체험, 오분밥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다.

무풍면 승지마을과 설천면 호룡마을, 적상면 내창, 괴목마을, 안성면 명천, 죽장마을은 6월 5일까지 언제라도, 설천면 대평마을과 적상면 치목마을은 주말에만, 안성면 두문마을은 6월 3, 4, 5일, 적상면 초리마을은 6월 4일과 5일 체험이 가능하다.

특히 안성면 두문마을은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의 '찾아가는 영화관'으로 서당체학과 산나물 채취,

나화놀이 체험 외에도 6월 3일은 "메밀 꽃 운수풍은 날, 그리고 불꽃(21:00~)", 6월 4일에 "인생은 아름다워(21:00~)", 6월 5일에는 "대호(21:00~)"를 관람해볼 수 있다.

군 기획조정실 이종현 홍보 담당은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 무주군 곳곳이 모두 축제장"이라며 "아름답고 깨끗한 무주의 자연 속에서 좋은 영화 한편, 즐거운 한 때를 만끽해보시면 정말 좋겠다"고 전했다.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간 무주읍 예천문화관과 덕유대 아영장 등 무주군 일원 실·내외 상영관과 찾아가는 영화관 등 8곳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올해는 개막작 "2016 필름관소리 춘향전 총연출 김태용 감독"을 비롯해 27개국 82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으뜸택시 승강장 신설 주민 이용편의 증진

삼례·고산터미널 부근에

완주군이 5월 말까지 삼례와 고산에 으뜸택시 승강장을 신설한다.

군에 따르면, 삼례와 고산에 으뜸택시 승강장을 설치하여 주민 이용편의 증진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삼례의 경우, 삼례공영터미널과 농협 사이에 있는 천일약국 앞에 승강장 표지판을 설치하였고, 대기실은 약국 안에 마련하였으며, 고산 으뜸택시 승강장은 이용객 및 차량의 동선을 고려하여 고산터미널 남문약국 옆에 설치하였다.

삼례터미널과 고산터미널은 삼례읍 7개 마을 및 고산면, 운주면, 화산면, 경천면 12개 마을 주민들이 으뜸택시를 타기 위해 모이는 장소로, 그동안 주민들은 이곳에서 마을로 돌아가는 으뜸택시를 타려고 길거리



완주 삼례 승강장.



완주 고산 승강장.

에 앉아서 기다리는 불편함을 겪어왔지만, 이번 승강장 설치로 인해 대기실 안에서 으뜸택시를 편안히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인도 및 도로 폭이 충분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라서 승강장 부지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삼례 천일약국과 고산터미널 대표의 배려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으뜸택시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설문 및 조사 등을 통해 으뜸택시 승강장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여 향후 추가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주군 으뜸택시는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9개 읍면, 36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주민이 500원만 지불하고 자부 우수정책 사례에 선정되는 등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줄고 있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현대차 반딧불이봉사단 삼례서 집수리 봉사활동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이석동) 사내 봉사활동 모임인 반딧불이봉사단(회장 한승호)은 29일 완주군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일원에서 진행된 이날 봉사활동에서 반딧불이봉사단은 천정이 내려앉은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92세 김 모 할머니의 노후주택을 맡김수리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선물했다.

이날 봉사활동에서 반딧불이봉사단과 완주군자원봉사센터는 내려앉은 천정과 벌어진 벽면 등을 보강재와 실리콘 등을 이용해 맡김수리하는 한편, 노후 벽지와 장판을 새 것으로 전면 교체해 집안팍을 맑고하게 세단정하며 값진 구슬땀을 흘렸다.

지난 2010년과 한 봉지 값인 '천 원의 행복'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작은 나눔 큰 사랑을 실천해온 취지로 모임을 결성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반딧불이봉사단은 7년 간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중이다. /완주=이종복 기자